

## 제9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수상작 안내



###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제9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공모작품 2781선
- 심사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21일
- 심사자 : 박경장 문학평론가, 장세정 동시작가, 김유진 아동문학평론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 심사기준 :
  - 진실성 (남의 생각과 언어를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직하게 담아 내고 있는가)
  - 창의성 (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독창적이고 풍부한가)
  - 예술성 (글의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주제 적합성 (동시대회의 주제 '내 마음'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공모주제 : '내 마음'에는 \_\_\_\_ (이/가) 있다! 없다?  
\*내 마음을 떠올리며, 네모 칸에 들어갈 소재를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 ■ 심사총평

### 동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박경장 심사위원

2023년 공모주제 '내 마음에는 \_\_\_\_ (이/가) 있다! 없다!'로 출품된 동시가 총 2781편이나 됐습니다. 세 분 심사위원이 각각 900여 편씩 나누어 심사했지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900여 개의 저마다 다른 동시제목과 첫 눈맞춤 했을 때, '와! 동시편의 점을 차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어린이들의 마음속은 다양하고 다채로웠어요. 거의 대부분 마음속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시를 지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가족, 친구, 반려동물, 게임, 축구, 자연, 내 속의 나'였습니다. 비록 적었지만 마음속에 없으면 좋겠다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숙제와 엄마 잔소리'였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면 이렇게 똑같은지 우습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출품된 작품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직하게 표현하려는 '진실성'을 담고 있어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컴퓨터 자판 몇 번만 두드리면 시가 똑딱 인스턴트 동시 상품을 찍어 내주는 달콤한 유혹에 아직은 현혹되지 않은 것 같아 휴! 안심했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대해선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자신의 마음속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짓기에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이나 관찰 그리고 표현을 최초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를 똑같이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2700편 출품작 중 입선된 작품들은 대부분 진실성과 창의성이 뛰어나 선정됐습니다. 진실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예술성'도 따라오게 마련이지요. 이런 작품들은 독자를 놀라게 하고 공감하게 하며 감동케 합니다. 읽고 나서도 시 속의 어떤 이미지, 시구가 잔상처럼 남아 쉬 사라지지 않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반성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좋은 시(글)는 어찌다 한 번 써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자신의 창의성이 "1%의 영감과 99%의 땀"에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생각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상상, 관찰, 표현은 끊임없는 상상연습, 관찰연습, 표현연습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2023년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에 참여한 어린이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작가가 되고픈 꿈이 있나요? 작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생각날 때마다 아무 글이라도 쓰세요.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 밖에 배울 수 없다는 걸 꼭 마음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 자신을 믿고 꼭 필요한 말로 '내 마음'을 표현

장세정 심사위원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올키즈스터디 동시대회에 직접 쓴 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살펴본 시는 920여 편입니다. 마음이 주제이다 보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명 다른 사람이 썼는데 내용과 상상력이 비슷한 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막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겠지요. 가족, 친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가깝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도 공감하게 표현하는 것이 숙제였겠지요.

우선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았는지 간절하고 답답하고 절로 터져 나오는 마음인지 살폈습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지어낸 감정이나 분위기, 단어로 시를 쓰면 읽은 사람도 막연하기만 합니다.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통과한 감정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아프고 외롭고 즐겁고 짜릿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왜 나에게 왔고 나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차근차근 적은 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쓴 시, 자신을 믿고 꼭 필요한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떠올리고 찾아본 시를 골랐습니다.

엄마랑 싸우고 나서 드는 외로움, 웃음 속에 숨은 진짜 내 마음, 마음이 만든 감옥, 마음속에 사는 동물들, 쫓고 쫓기는 마음들이 올해도 저를 많이 위로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부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시원해지고 크고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과 그림 보내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시작

김유진 심사위원

전국의 많은 어린이가 쓴 시를 읽으며 무척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살짝 비밀을 말하자면) 어른이 쓴 동시나 시를 심사하는 일보다 몇 배 더 기뻐했습니다. 시에 담긴 어린이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 한 편에서 한 명의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어린이를 한꺼번에 만나 마음 가장 깊숙한 데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는 일은 흔치 않겠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모 주제가 “내 마음에는 (이/가) 있다! 없다?”여서 어린이의 마음을 더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쓴 시도 있었지만 공모 주제에 맞춰 새로 쓴 시를 보내주셔서 더 반갑게 읽었습니다. 많은 어린이의 마음에는 가족과 친구와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어른이 되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축구와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정말 많다는 것도 알았구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고민이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솔직히 보여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린이가 너무 많아 어른으로서 또 한 번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 대회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고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관심이 없거나, 마음을 잘 모르거나, 때로 모르는 척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아는 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을 시로 써 보는 일은 마음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어른이 쓴 동시는 전부 잊어버려도 좋아요. 동시와 비슷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시를 써 보세요. 시를 쓰는 모든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를 쓴다고 생각하니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동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상후보작 최종심사 총평

김려원 어린이의 '내 마음에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다른 응모작들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된 가족 사랑을 할아버지 한 분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생히 떠오르고, 그래서 제사에서 평평 울었지만 또 곧잘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하지만 늘 할아버지의 부재에서 존재를 찾는 역설이 반복되며 묵직한 깊이로 전해집니다. 이 역설에는 어린이가 느끼는 사랑, 그리움, 삶, 죽음 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시로서의 미학성은 다소 부족하나 어른 작가의 동시를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이한 언어로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어 어린이시 쓰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의찬 어린이의 '나비'는 구체적인 상상력을 세밀한 언어로 구성해 낸 역량이 무척 뛰어납니다. 어린이 시에서 판타지적 상상력에 바탕한 시는 대개 전형적으로 표현되어서 자신의 일상이나 마음을 담은 시보다 감동이 덜한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점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작가가 의탁한 나비 화자는 하늘을 나는 자유와, 다른 존재와 연결되길 꿈꾸는 마음을 아름다우면서도 단단하게 보여줍니다. 하늘거리는 나비의 날갯짓을 두고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한 부분은 작가에게 이 상상이 얼마나 생생하게 자리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전합니다. 적절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도 재미있습니다.

서재연 어린이의 '우리집'은 위 두 작품의 장점인 묵직한 감동과 시적 언어의 미학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시의 첫 행 '우리집은 아빠가 계신다'는 비문이고, 작가는 시적 허용을 고려해 일부러 비문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엄마의 부재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엄마가 빠진 가족 안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비오는 날의 적막에서 엄마의 부재로 인한 자신의 상실감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실감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과정을 시에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행의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장이 큰 외침으로 독자에게 울립니다. 이 시는 어른 작가의 동시를 따라 쓰는 기교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는 시선만으로 시의 미학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를 대상작으로 추천합니다.

심사위원 박경장, 장세정, 김유진 (정리: 김유진)

※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1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4	서재연	야!우리지역아동센터	우리집

▣ 최우수상 (2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3	정의찬	서울송덕초등학교	나비
5	김려원	정현사회적협동조합 도담울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할아버지가 있다

▣ 우수상 (18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류민경	시흥가온초등학교	내 마음은 깨끗해
2	박세인	부산교대부설초 독서논술	교생선생님 안녕히가세요
2	최진원	박쌤독서논술	언젠가
3	임다은	참다운하늘꿈터지역아동센터	우산
3	신지원	구립성내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이 있다 없다
3	이우승	다부초등학교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
3	이윤슬	수왕초등학교	내 마음에는 동물이 있다
4	권지율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 학교 4학년 난초반	내 마음은 긴 복도
4	차우리	세화주택	내가 축구를 못할 때
4	김하윤	참사랑애프터스쿨	엄마랑 싸운날
4	윤서진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의 눈
4	한이든	시립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내 마음 속에 악마, 천사
5	유재민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착한악어
5	장은우	페트라비전학원	웃음가면
5	류시우	목감초등학교	감옥
5	장찬	안양초등학교	게으른 소파
6	이주원	부안초등학교	축구공
6	방하울	채러티크리스천초등학교	화산

## ▣ 장려상 (33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박기쁨	인천중구가족센터	내이름
2	박하을	울산대현초등학교	내 마음에는 아빠비타민이 있다
2	문지은	샛별지역아동센터	나는 떼굴떼굴 도토리
2	김시현	서울서일초등학교	풍선껌
2	권기윤	박쌤독서논술	휴대폰
3	박채원	푸른초등학교	먹쟁이와 멋쟁이
3	윤민서	도농초등학교	구름 이모티콘
3	이태준	도담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성적이 있다
3	천태준	동방지역아동센터	즐거움
3	조재연	상록지역아동복지센터	장난
4	최현우	부산 수영초등학교	달팽이
4	이준혁	은울과외교습	누가 막았어
4	김승호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까마귀가 있다
4	박하을	채리티크리스천초등학교	내 마음의 축구공
4	이서현	미래학원	미술도구
4	김주완	책 먹는 고양이	찰싹 붙어 있는 공부
4	이정현	고운초등학교	우리 학교 중간놀이
5	이시안	스콜라공부방	블록들
5	하안나	인천경명초등학교 5학년 3반	햄스터 떠난날
5	도희영	서울한서초등학교	내 마음속의 고양이 한 마리
5	정연서	샘터지역아동센터	실타래
5	박해솔	미래학원	플라잉요가
5	김하은	참사랑애프터스쿨	그네
5	박서우	민들레지역아동센터	내마음에는 이름 모르는 아이가 숨어있다
5	정혜원	옥길버들초등학교	또오옥딱, 똑딱
5	서한결	시립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상자더미
5	황수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창문이 있다
5	김나영	증평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선풍기가 있다
6	고준	춘천 성림초등학교	날 따라다니는 공부
6	박수빈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6	이루리	논술여행	마음 속 공기 주머니
6	이지연	해나비지역아동센터	슬픔의 비
6	안시환	평화논술학원	단어추격전

▣ 특별상 (21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이지율	고운초등학교	마음신호등
1	김연주	삼익지역아동센터	엄마
1	황영화	강화초등학교	내마음속에는 엄마의 걱정이 있다
2	최유찬	서울 개봉초등학교	꿈 공사
3	염서인	참다운하늘꿈터지역아동센터	발표
3	이연주	선동초독서논술	내 마음 속엔 별들이 있어요
3	임지훈	도담지역아동센터	내 마음에는 심사위원이 없다
3	한주아	시립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내 마음 속 공룡
3	지연주	영운지역아동센터	나는요
3	정예서	다니엘열방학교	내 마음속에 안개
4	강하은	사남초등학교	내 마음의 열쇠
4	김예솔	한류초등학교	사실은
5	백지훈	발음지역아동센터	활짝 핀 예쁜 꽃
5	정다솜	부산교대부설초 독서논술	왜 해야할까?
5	신예서	목도중앙지역아동센터	가족나무
5	이채윤	세움지역아동센터	감정세상
5	김은수	상록독서논술	내 마음에 있는 친구
6	정지우	점프지역아동센터	한마디
6	신재은	고양 정발초등학교 도란도란	온도계
6	김도은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불났다
6	윤지우	명학초등학교	마음 속 휴지